

당대 대만의 한국담론-최근 5년간의 『自由時報』보도를 중심으로

曾天富(臺灣 國立政治大學 韓國語文學科 教授)

1. 머리말

대만과 한국 양국은 근대로의 진입시기와 방식, 일본의 식민통치, 전후 냉전체제로의 편입, 비약적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 중인 전지구화 추세에 대한 경제, 문화적 대응 등, 전반적인 현대 역사경험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화, 사회전반에 걸쳐 양국 간의 심도 있는 상호이해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방면에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으로 근대이후 양국이 자신의 주도 하에 인접 국가로서 서로를 인식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근대진입과 거의 동시에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로 인해¹⁾ 대만과 한국은 일본제국의 판도 안에서 서로를 상상해 왔으며 전후 냉전체제, 즉 양국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기획으로의 편입은 반공과 자유 이데올로기로 서로를 정의하면서 공산주의 중공과 북한을 매개로 상호 동일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1945년부터 양국 간의 국교가 단절된 1990년대 초반까지 형제의 나라로 서로를 인식한 데는 반공주의 노선의 공유와 그 배후에 위치한 미국관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92년의 대만, 한국간의 국교단절은 냉전체제 와해의 실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양국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상호이해에 있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급속히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해체는 곧 이은 자본주의 전지구화의 도래와 맞물리며 그 이전까지 세계를 움직이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이런 세계사의 기류에서 양국은 전지구적 변화에 대처함은 물론 양안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사고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의 햇볕정책과 아세안 등 지역적 경제협력체의 적극적 진입 노력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며, 대만의 경우는 대내적 문제로 인해 이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띄며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과는 달리 각기 다른 시기에 이주해온 다수 족군(族群)²⁾으로 구성된 대만사

1) 대만은 1895년 청일전쟁에 패한 청조에 의해 일본에 할양되었고, 한국은 1910년 일본에 합병되었다.

회는 전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중화민국으로의 반환과정에서 생겨난 本省人과 外省人 간의 족군대립이 7, 80년대 정치적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본토의식과 대만 주체성을 중시하는 개별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으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 뿐 아니라 이웃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과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볼 때 대만과 한국 양국은 세계사적 변화와 대내적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만에서는 지난 10여 년 간 한류라는 대중문화의 차원에서 한국을 인식하는 기회가 있어왔지만 주권국가로의 정체성 확보와 자본주의 전지구화 시대 인접 국가 간에 있어 더욱 밀접한 협력을 요구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더 이에 부합되는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문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대만의 당대 한국담론을 살펴보고 그 시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찰의 주요대상은 최근 5년간 『自由時報』에 게재된 한국관련 보도와 논평문장이다. 이를 고찰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聯合報』, 『中國時報』를 포함한 대만 3대 신문의 보도를 살펴본 결과 『自由時報』가 다른 신문에 비해 한국담론이 가장 많았고, 또 대만독립 성향이 강한 매체 특성상 타 신문에 비해 한국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드러나며 바로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변화하는 대만의 시각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은 우선 언급빈도가 높은 몇 가지 주제에 대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 논술의 배후시각을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하되 필요시 기타 신문의 보도를 참고하여 설명할 것이다. 토론에 앞서 먼저 밝혀둘 것은 이러한 고찰이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시사성을 띄기 때문에 주제의 선정에 있어 매우 편의적이며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 최근소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해둔다.

2. 『自由時報』의 한국보도와 논평내용

(1) 「서울」正名

최근에 나온 한국관련 소식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내용은 2005년 「서울」의 한자표기인 「漢城」을 「首爾」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自由時報』는 환영일색

- 2) 여기서 족군은 동일언어와 역사경험을 공유하는 에스닉(Ethnic) 집단을 일컫는다. 현재 대만에는 가장 먼저 대만섬에 거주한 13개족의 원주민과 1949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중국에서 건너온 本省人, 그 이후 國共內戰에 패한 국민당의 대만철수와 함께 건너온 外省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논평을 내면서 한국의 주체성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서울」正名에 대한 『自由時報』의 논조는 탈중국화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 한국이 한자문화권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이번 개칭이 서울이 중국의 속지라고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의 개칭을 대만의 경우와 비교하고 한국을 본받아 탈중국화를 가속화해야 대만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논조로 마무리하였다.³⁾

그런데 이들 논평은 서울이 漢城으로 표기된 내력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개 없이 서울이 漢城으로 불리었던 것이 중국의 한국지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漢四郡의 설치를 염두에 두고 한국은 漢朝이래 중국에 병탄되었던 사실과 그 이후도 오랫동안 朝貢體制에 속하는 중국의 속국이었던 점을 들면서 서울 개칭이 이러한 중국영향을 벗어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서울 개칭의 연유에 대해서도 당시 한중 양국 간에 불거진 고구려, 발해국 등 과거역사해석을 둘러싼 충돌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계기를 통해 한국은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에 중국의 비평화적 쥔기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自由時報』의 서울 개칭 문제에 대한 담론은 당시 한국에서 거론되었던 서울의 한자표기 개칭에 대한 실질적 이유나 혹은 漢城 표기의 유래에 대한 소개보다는 그 효과인 중국영향 제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당시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한자 문화권의 외래 관광객을 위해 도로표지판 등에 한자병기를 추진함에 따라 수도 서울의 한자표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개칭의 실질적 이유이며, 특히 서울에 대한 한자표기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⁴⁾ 새로 제정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물론 漢城이란 표기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한정되었을 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서울」이란 음을 표현할 수 없고, 또 서울이라는 순 한국말이 민족의 얼을 표현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이의 한자표기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는 자매도시인 도쿄가 서울을 자국어 가타가나인 「ソウル」로 표기하는 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베이징시가 漢城을 고집하는 데는 불만을 나타내었다. 이는 漢城이 서울의 한때 지명이기는 했지만 해방 후인 1946년 京城에서 서울로 개칭되면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어 현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自由時報』에서 논평하는 바와 같이 중

3) 대표적인 문장으로 李敏勇, 「韓國能, 台灣不能」, 鏗鏘集, 2005.1.22; 李筱峰, 「漢城要去中國化」, 自由廣場, 2005.1.22; 林玉体, 「首爾·西貢·夏威夷」, 自由廣場, 2005.1.22; 「漢城可以正名首爾, 台灣正名有何不可?」, 社論, 2005.1.24; 盧世祥, 「建構主體歷史文化, 南韓能, 台灣也行」, 社論, 2005.6.19; 郭長豐, 「正名優先」, 社論, 2007.1.18 등이 있다.

4) 서지학자 김시한씨에 의하면 조선 영조시절 때 편찬된 『增補文獻備考』의 기록에 서울의 한자표기가 「徐苑」이라고 되어 있다 한다.

국의 영향을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기도 했다.

당시 盧載源 氏 駐中대사가 漢城이 大韓帝國 시기에 청조에 의해 불려진 이름으로 수도를 나타내는 한자어인 京이 아닌 지방도시를 나타내는 城을 쓴 것은 지명 강등의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대한제국이 청조에 속한 屬邦國家라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록 관습에 의해 漢城으로 불리기는 하나 개칭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漢城이란 명칭은 14세기 조선이 서울에 도읍을 정하면서 기존의 漢陽에서 개칭한 것으로 동아시아 중세의 한자문화권의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설이 무성했던 것은 당시 서울의 한자표기 개칭을 둘러싸고 한중 양국 국민들 간의 불필요한 감정적 마찰이 있었음을 보여준다.⁵⁾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自由時報』에서 나온 일치된 찬성의견은 한국의 경우를 빌어 대만 내 탈중국화 문제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거의 모든 문장이 이를 계기로 대만의 탈중국화를 가속화시키고 正名運動을 벌여야 한다는 것으로 끝맺고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인식에서도 일방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령 한나라 시기부터 淸 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중국의 영향아래 놓여 있었던 한국이 탈중국화에 성공했다면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淸朝의 통치를 받은 대만의 경우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장 이유가 오랜 기간 중국에 속했다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대만보다 더 오랜 기간 중국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물론 淸朝 혹은 그 이전의 元朝를 현재의 중국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할 수 있으며 이런 주장의 배후에는 중국의 민족주의 야심을 비판하는 시각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自由時報』의 이러한 논리는 한국과 대만의 민족, 혹은 족군 구성과 중세 한자문화권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이차대전 후 한국과 대만이 걸어온 각기 다른 역사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대만이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한국이 이렇게 서울의 한자표기 개칭을 통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이유로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이를 대만이 나아가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自由時報』의 논술 배후에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중간의 역사논쟁에서 보듯이 중국 민족주의의 팽창에 대한 경계심과 대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간섭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 正名에 관한 『自由時報』의 지대한 관심은 바로 이를 대만의 경우에 대입시

5) http://www.traveltimes.co.kr/news/news_tvview.asp?idx=14584 (2008.11.28)

켜 당시 진행되던 탈중국화와 공공기관에 대한 正名運動⁶⁾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漢城의 개칭에 중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보여주었던 한국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입장과는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탈중국화를 탈문화로 인식하는 문장이 실린 『聯合報』와도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하겠다.⁷⁾

(2) 독도문제와 국가주권

서울의 한자표기 개칭에 대한 평론에서 보여주었던 논점은 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韓日 간의 공방전과 시위에 대한 보도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한국의 자국 영토 보호와 시위에 대해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논평하며 한국의 행동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은 바로 한국의 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특히 민간차원의 시위와 동시에 한국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⁸⁾

그런데 이 보도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경우를 대만의 주권문제와 대비 혹은 매개로 보려는 목적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과 대만을 동일하게 냉전의 산물인 비정상적인 국가로 규정하면서 분단 상태의 한국과 아직도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만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한국의 적극적 주권옹호를 대만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와 매우 비슷한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釣魚台列島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그보다 중국과의 주권분쟁이 예견되는 남해의 南沙, 東沙群島에 대한 주권옹호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부, 민간 차원의 적극적 행동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釣魚台列島는 대대로 중국영토로 알려져 왔으나 1970년 일본이 해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을 주장한 후부터 중국, 대만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 지역이 되었다. 당시 대만은 유엔에서의 중국대표 지위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관계로 일본에 대한 강력한 항의는 하지 못하고 주권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쳐 이후 학생들의 釣魚台보호운동(保釣運動)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自由時報』의 釣魚台 언급 회피는 중국에 대한 다른 정의와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自由時報』의 대만독립 성향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또한 일본과의 주

6) 2000년 출범한 민진당 陳水扁정부가 주도한 원래 이름 회복운동으로 중국식의 도로명, 中正公항 등 공공기관의 개명 등이다.

7) 「文藝無國界, 大師也趕韓流, 桃李無數, 咸信『小叩小鳴, 大叩大鳴』, 憂心『去中國化』成了『去文化』, 2005.2.14A10版

8) 주요 문장으로는 「看看南韓人」, 鏗鏘集, 2005.3.18; 藍靖, 「積極宣示主權」, 自由廣場, 2005.12.23; 姜皇池, 「請拿出咱們台灣人的氣魄」, 自由廣場, 2007.1.18; 「台灣路要台灣人自己走出來」, 鏗鏘集, 2007.8.12 등이 있다.

권다툼이 장래 대만의 독립국가로의 발전 노력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의식이 그 배후에 숨어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비판과 대만주권옹호가 『自由時報』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이며 한국의 독도 주권쟁취와 관련된 보도와 논평을 중국을 의식한 대만의 주권쟁취와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한국 내 대만 유학생의 국적란에 중국(대만)으로 기입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국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대외적으로 쟁취하려는 주권을 대만에도 동일하게 보장해 줄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⁹⁾ 또한 이와 더불어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려는 한국의 노력,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의 상징 문양인 봉황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봉황 문양이 대통령과 국민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자유시보의 해석은 용이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봉황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 상징물을 철폐하여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자주권 행사로 해석하고 있다.¹⁰⁾

(3) 역사청산

주권쟁취와 관련된 또 다른 보도는 역사청산과 관련된 것이다. 4.3 제주사건 진상조사, 8.15 광주항쟁의 조사와 배상문제가 보도되자 이와 관련한 논평이 상당수 나왔는데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228사건과 연계해 한국에서와 같이 철저한 조사와 국가보상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요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특별입법을 통해 이들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민주화의 동력이 되었다고 해석하며 또한 한국의 총독부 건물의 철폐를 예로 들면서 일제시기 역사청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동의를 표하고 있다.¹¹⁾ 이러한 논지는 지난 4-5년간 대만에서 줄기차게 논의되던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한 예로 한국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사건과 광주 민주항쟁을 228사건과 비교하는 문장은 곧 바로 228사건의 책임을 蔣介石에게 물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한국처럼 특별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정권이 교체된 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馬英九 총통과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정책을 예의 주시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9) 必潤, 「高麗(中國)」, 自由廣場, 2007.1.21

10) 羅成志, 「李明博『去中國化』」, 自由廣場, 2008.2.26

11) 주요문장으로 俞甯凱, 「這些錢值得花」, 自由廣場, 2007.12.8; 陳儀深, 「228的轉型正義」, 自由廣場, 2008.2.28; 朱立熙, 「轉型正義向前行」, 自由廣場, 2008.4.3 등이 있다.

이렇게 역사청산 혹은 역사 바로 알기와 관련된 논평에서도 동일하게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관련된 역사청산, 예를 들어 總督府를 현재 그대로 總統府로 사용하는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1947년 중국에서 건너온 국민당 휘하 정권의 대만통치에서 빚어진 비극인 228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담론이 한국역사와 사회의 맥락에서 보도되고 논평되기보다는 이를 매개로 대만의 경우에 대입하여 특정 시각에 알맞게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무역경제

대만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양국 간의 무역관계나 혹은 경제성장에 관한 보도에서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재기하여 고도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최근 몇 년간 경제상황에 대해서 많은 논평이 나오고 있다. 경제부분의 담론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방식과 중국시장 개척을 검토하면서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 이른바 西進政策에 대한 비판 제기이다.¹²⁾

먼저 1997년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만의 대한국 무역적자의 심화에 대해 그 원인을 한국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에서 찾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발전이 자금축적과 연구개발에 유리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예로 삼성과 현대를 들면서 이들 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생산하게 된 배경을 보도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경제성장의 이유로 대만과는 다른 방식의 중국투자를 들면서 중국시장에 의뢰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 브랜드 전략의 구사, 문화 창의(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서 찾고 있다. 반면 대만은 1980년대에는 전통제조업이, 1990년대부터는 첨단 과학기술산업까지 중국으로 대량 진출해 초기 중국시장을 공략하기는 했으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실력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 나온 경제관련 담론은 주로 중국투자와 중국시장 개척양상에서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며 양적으로 대만이 한국의 10배에 달하는 투자를 중국에 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이 사업 확장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대만기업은 뿌리 뽑기식 西進으로 당초 예상했던 자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고 있다. 또한 중국의 연안지역, 즉 대만기업이 포진해 있는 지

12) 주요문장으로는 「只想三通不求上進出賣台灣就業機會將大輸給韓國」, 社論, 2005.1.11; 黃天麟, 「大膽西進, 才輸給韓國」, 自由廣場, 2005.6.13; 「外貿出超銳減產業西進乃是元兇」, 社論, 2005.8.10; 「選擇『台灣』及『經濟自主』這一邊-台灣對中國投資為韓國的十倍還能不警惕嗎?」, 社論, 2005.11.30; 黃天麟, 「小我與大我之間」, 自由廣場, 2006.2.9; 蔡進丁, 「韓國比台灣好?」, 自由廣場, 2007.7.17; 林濁水, 「韓國產業策略與新潮流」, 自由廣場, 2007.7.17 등이 있다.

역에 대한 중국당국의 정책실패도 대만기업의 도산을 초래한 주요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李登輝 집권시기에는 「戒急用忍」정책을 고수하고 대륙진출을 규제하였지만 陳水扁 집권기에 대중국 투자개방을 시행하면서 매우 많은 기업이 빠져나갔고 중국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대만 상인, 즉 台商의 수가 이미 백만 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의 중국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自由時報』의 논평은 일률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그 잘못을 이전의 국민당 정부 경제 관료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루빨리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평의 기조에는 자본주의 전지구화 추세에서 질 높은 고급제품의 생산과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만이 유일한 경쟁력이며, 대만도 이제 그러한 길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西進정책이 추구하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방대한 소비시장만을 염두에 두는 경제 전략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 추세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인식의 배후에는 『自由時報』의 일관된 정치의식과 목적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반감과 동시에 지나친 의존이 대만의 생존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가령 대만기업과 사업가들의 대거 중국진출이 양안간의 적대의식을 모호하게 만들어 장래 독립국가 건립노력에서 전투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평이 그것이다. 한국 GDP가 이미 대만을 초월했다는 동일한 보도에서 다른 신문과 언론매체가 주로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대한 원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데¹³⁾ 비해 『自由時報』의 이러한 논평은 양안관계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과 의견표명은 최근 들어 특히 馬英九 정부가 중국관광객 유치, 혹은 兩岸三通으로¹⁴⁾ 대만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반중 분위기가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양안회담을 성사시키자¹⁵⁾ 더욱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自由時報』의 한국경제관련 보도와 논평은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는데 대만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예로 들면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방식이 대만과 다름이 바로 대만의 對한국 무역적자 증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3) 韓國是不是就要趕過我們了, 『聯合報』, 社論, 2005.3.20; 韓國逆勢上揚, 又把台灣比下去, 『中國時報』, 2007.12.17

14) 三通은 항운, 해운, 우편물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왕래하는 것을 말한다.

15) 2008년 11월 3일에서 7일까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 陳雲林的 대만방문으로 1993년 이래 15년 만에 제2차 양안회담이 성사되었다.

(5) 문화일반

한국문화에 대한 대만 언론의 관심은 최근 10여 년간 주로 한국 대중문화인 韓流 소식으로 채워져 왔다. 그간 대만에서 논의되었던 한류, 그 중에서도 한국 연속극 유행의 원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실과 밀착된 스토리, 아름다운 배경, 스토리와 잘 어울리는 음악, 재미와 교훈의 적절한 결합, 그리고 같은 유교문화권으로서 느끼는 가치관의 유사함 등이 거론되어왔다.¹⁶⁾ 또한 OSMU(One-Source Multi-Use), 즉 하나의 상품을 통해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하는 판매방식과 기본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찬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류관련 소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비록 한국 연속극이 여전히 안방을 점령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의 신선함에서 벗어나 이미 하루 일과로 생활화 되어가고 있으며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구성으로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류의 생활화는 한국관광의 증가와 화장품, 의류 등 한국제품의 구매에서부터 시작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까지 한국식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한류가 가져온 산업적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10여 년 이상 지속된 한류현상에 비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도 그 이전보다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 한류현상으로 인한 문화교류라면 2005년 2월 타이베이 서적 전람회가 한국을 주제로 개최되었던 것이 가장 주목받은 일이었다. 물론 한국 문화계 인사 개인, 혹은 소집단에 대한 소개와 작품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¹⁷⁾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타이베이 서적 전람회는 매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각국의 서적 소개와 판매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각지의 현 문화상황을 알 수 있는 척도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형 문화 활동이다. 당시 「閱讀韓國, 感受韓國」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전람회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한국소설이 소개되고¹⁸⁾ 직접 작가와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대만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이 활동에 초대된 작가 이문열은 각 신문사와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16) 전성홍, 「타이베이 시민들의 ‘하한쭈: 대만의 한류」, 신윤희 외 『동아시아의 한류』(전예원, 2006), pp.51-71; 김현미, 「대만속의 한국 대중문화」, 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p.155-188; 江佩蓉, 『想像的文化圖景: 韓流與哈韓族在台灣』, 國立政治大學新聞研究所碩士論文, 2004.10 등 논문 참고.

17) 가령 台北를 비롯한 각 지방 文化局, 美術館, 각 도시의 圖書館 등에서 음악, 영화,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국과 각종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18)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국에 출연하여 자신의 소설과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의 소설 역시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독서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다.¹⁹⁾ 그러나 그의 소설은 판매량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여 일반대중으로 전파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류 붐은 그간 한국어 학습 붐도 조성하여 대학의 기존 한국어문학과뿐 아니라 언어센터나 고등학교의 외국어 수업,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 혹은 일반 학원 등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이로 인해 대만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²⁰⁾ 또한 같은 대중문화에서도 연속극 이외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고 문학, 예술 등 고급문화로의 확대는 더욱 요원해 보인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自由時報』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²¹⁾ 최근의 보도와 논평을 살펴보면, 한국의 문화 창고 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의 역할, 주도기관과 육성방식 등 비교적 자세한 소개를 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중문화를 창도하고 육성하는 점을 들고 대중문화의 수출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도 중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독립된 국가로서 대외적인 정치적 자신감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점에서 대만은 선천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고 있다.²²⁾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도 외 『自由時報』는 현대시와 한국관련 서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현대시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식민과 민족분열의 역사적인 비애를 극복하고 문화적인 강국으로서의 발돋음을 하는지 고찰하고 있다.²³⁾ 그밖에 베를린 자유대 박성조 교수의 책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²⁴⁾ 남북

19) 韓國人氣作家李文烈想認識台灣獨特性, 『聯合報』, 2005, 2, 17 C6版

20) 증천부,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현황과 몇 가지 문제점」, 제48회 한국언어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11.30-12.1

21) 『自由時報』는 한국문학을 집중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 기획으로 나온 문장으로는 崔末順, 韓國詩的見證人-高銀(Ko Un, 1933-)의批判與關懷, 自由副刊, 2005.11.04; 與命運熾烈對抗的靈魂-朴景利(1926-2008)和她的《土地》, 自由副刊, 2005.08.11; 九〇年代後韓國文學的主流傾向-記憶的形式, 慾望的語言, 自由副刊, 2005.02.19; 「四一九世代」의自信與力量-《創作與批評》及《文學和社會》, 自由副刊, 2005.02.17; 花謝了, 但詩還在-追悼詩人金春洙, 自由副刊, 2004.12.09 등 10여편이 있다.

22) 주요문장으로 簡啓洵, 「文化的國防效果」, 自由廣場, 2005.10.23; 王正德, 「韓流的故事」, 自由廣場, 2006.1.13; 曾妃子, 「韓劇夾帶商機」, 自由廣場, 2006.1.14; 紀大偉, 「眼球全球化-冬季戀歌」, 自由副刊, 2006.3.16 등이 있다.

23) 李敏勇, 「以詩爲誌的國家」, 鏗鏘集, 2005.2.19; 「有光榮感的國家」, 社論, 2005.9.18

24) 朱立熙, 「第三隻眼睛的國際觀-翻譯『南北韓, 統一必亡』」, 自由廣場, 2005.12.22; 朴成祚, 「南北韓, 統一必亡」, 自由廣場, 2006.1.6; 曹長青, 「兩岸統一, 台灣必亡」, 自由廣場, 2006.

한의 이질적인 체제문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양안관계에 대입해 중국과의 통일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 우호적인 김용옥 교수의 『韓國心・臺灣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며 양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²⁵⁾ 이렇게 『自由時報』는 타 신문에 비해 한국문화와 문학에 대한 비교적 심도 있는 보도와 논평을 내고 있지만 신문사의 정치적 입장에 부합되는 한국지식인을 소개하거나 혹은 이에 맞게 한국의 문화와 문학을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6) 정치, 시사

정치, 시사 방면의 한국관련 보도는 한국의 낙선운동, 대선 관련 소식, 그리고 미국 소고기 반대시위 등이 많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미국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내의 시위가 가장 관심을 끌었다. 국민 건강차원에서 시작된 시위가 정치적이슈로 변질되었던 한국과 비슷하게 『自由時報』 역시 이를 한국의 지나친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反美심리는 곧 한국인의 피해자 심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논평하였다.²⁶⁾ 한국을 연구하는 미국학자 프레드 알포드(C. Fred Alford)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인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게 미국 탓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광주사건 때도 학살명령을 내린 자신의 동포보다 미국이 이를 막지 못했다는 데 더 불만을 표시했고, 주한미군 군사훈련 시 여고생이 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거국적으로 반미시위를 벌였지만 같은 달 북한 해군이 여섯 명의 남한선원을 총살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보도는 또한 한국전쟁에서 오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희생되었으며 전후 경제적 지원이 오늘날의 남한을 있게 하였으므로 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동시에 비판의 대상을 국민당으로 바꾸어 馬英九 총통의 反日親中 노선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시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피해의식으로 인한 반미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자신의 동포라 하여 민주국가인 일본보다 전제국가인 중국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잘못이며 동시에 양안협에서 군사적으로 대만을 보호해 주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반대나 비판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의 탓만 하는 피해자 심리와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점을 한국의 예를 통해 강조하고 혈연종족보다는 가치와 이념의 기치아래 단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논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목적과 입장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중국과 국민당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동시

1.11

25) 金容沃, 朱立熙譯, 「韓國心・臺灣情(上下)」, 自由副刊, 2006.4.25-26; 吳錦發, 「韓國的良心爲台灣吶喊」, 自由廣場, 2006.4.29

26) 曹長青, 「韓國民族狂熱的教訓」, 自由廣場, 2008.7.14

에 한국은 물론 대만에 대해서도 편면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3. 『自由時報』 한국담론의 시각

앞에서 정리한 주제별 한국관련 보도와 논평은 최근 5년간 『自由時報』의 「社論」, 「鏗鏘集」, 「自由廣場」과 「自由副刊」란을 대상으로 고찰한 것이다. 「社論」은 신문사 설이며, 「鏗鏘集」은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인사나 전문 평론인의 투고형식으로 편집, 운영되고, 「自由廣場」은 주로 독자와 전문 기고가의 투고란이며, 「自由副刊」은 문화, 문학 일반을 다루는 란으로 문화계 인사들이 청탁을 받아 집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계로 앞서 보았듯이 『自由時報』의 한국담론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매개로 대만을 논의하는 데 주요목적들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정리에서 드러난 한국담론의 시각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심할 경우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현상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왜곡하는 경우까지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自由時報』의 한국담론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내용소개에서 누누이 드러난 바와 같이 『自由時報』 평론문장의 가장 두드러진 기조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의 대만건설이란 정치적 목적과 중국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국민당에 대한 비판이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보도가 대만독립의 정치적 지향이라는 이 표준망에 의해 걸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서 본 바 한국담론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정치적 독립지향은 『自由時報』의 기본성격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기사와 논평을 총괄하는 표준 시각이기도 하다. 「台灣優先, 自由第一」을 모토로 내걸고 1980년에 창간된 『自由時報』는 일반적으로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범 녹색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自由時報』 발간 이전 녹색입장을 견지했던 『首都早報』, 『自立早報』, 『自立晚報』, 『台灣日報』등이 차례로 정간된 후 이들 신문의 독자층이 『自由時報』를 지지하여 현재 대만의 3대 신문의 하나로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다. 『自由時報』의 전신은 일찍이 1946년에 台東에서 창간된 『台東導報』이며 경영부진으로 몇 차례의 정간과 복간을 거쳤고 1980년에 현재의 사주인 林榮三의 聯邦集團에 팔려 『自由日報』로 개명되는 동시에 정식으로 대만 중부지방을 주요 가독권으로 하는 지방신문으로 자리 잡았고 1986년에 타이베이 지역으로 옮겨와 이듬해 다시 『自

27) 대만에서 국민당과 민진당의 당기 색깔을 기준으로 남색은 국민당을, 녹색은 민진당을 가리킨다. 양당간의 대립을 흔히 藍綠對立이라고 부른다.

由時報』로 개명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사업 확장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로 발전하였다. 전통적으로 국민당 정부에 대해 비판성향을 보였던 『中國時報』가 2000년 정권교체이후 성향이 바뀌면서 범 녹색 입장의 독자들이 『自由時報』를 구독하게 되었고 여기에 동일 성향의 『台灣日報』가 정간되자 『自由時報』는 더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여 현재 대만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구독률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自由時報』의 정치성향은 범 녹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편향되고 있다고 보지만 정권교체 이전에는 李登輝를 중심으로 하는 國民黨의 특정 계파를 지지하여 이른바 온화한 本土路線으로 평가받았고 2000년 대선 당시 국민당 총통후보인 連戰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李登輝가 陳水扁과 민진당을 지지하면서 『自由時報』 역시 陳水扁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총선과 대선을 포함한 각 지방단체장 선거 등 각종 크고 작은 선거에서 『自由時報』는 확실히 민진당 후보들에 대해 「비교적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²⁸⁾ 『自由時報』의 경제 입장은 명확한 西進政策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우파편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非親中 성격은 대만의 신문, 잡지 중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이며 기타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중국의 부정적인 소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모든 일반성 보도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앞서 말한 외부섭외 인사나 투고 평론문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2절에서 정리한 문장의 주요 집필진 중 칼럼니스트 黃天麟은 주로 경제 분야에서 가장 격렬하게 중국진출, 즉 西進政策을 반대하는 인사이며, 曹長青은 반중국 성향의 재미작가로 북경 올림픽 비판 등 문화 분야에서 반중국 문장을 주로 게재하고 있고, 朱立熙는 언론인이며 한국통으로 알려져 있고 역시 독립성향이 매우 강하며, 역사학자 李筱峰은 중국, 혹은 중화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대만의 역사를 되찾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중견학자이다. 따라서 이들 집필진이 주도하는 평론은 대만의 정치적 자유주장과 중국에 대한 비판, 본토위주의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한국담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²⁹⁾

바로 이러한 시각에 부합되거나 근거가 될 수 있는 한국관련 보도는 어김없이 다루어지며 이로 인해 비록 타 신문에서보다 월등히 많은 한국담론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또한 『自由時報』와 집필진의 특정 시각에 따라 왜곡되거나 강한 목적지향성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自由時報』의 시각에 부합되는 소식에서

28) 예를 들어 2006년 타이베이 시장선거에서 국민당과 민진당 후보의 보도에 있어 비례원칙에 어긋났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9) 집필진 중에는 민진당의 전직 입법위원인 林濁水와 민진당 정부에서 文建會副主委를 역임했던 吳錦發 등도 있다.

는 한국에 대한 찬사 일변도의 평론이다가도 대만의 주권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양국관계에서 중국이 개입되었을 경우 한국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동시에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自由時報』의 한국담론이 자회사 시각에 고정되어 있는 목적 지향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

다음으로 『自由時報』의 한국담론 중 타 신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시각으로 한국 문화와 문화에 대한 보다 애정 어린 이해와 긍정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문화, 문학부문의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대만 시인 李敏勇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데, 양국 시인간의 교류와 국제회의 참가 차 한국에도 수차례 다녀왔으며, 한국시도 여러 편 번역하여 출판하는 등³⁰⁾ 한국문학에 대한 소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李敏勇 역시 대만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실제로 여러 문화운동에 참가하는 문화계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한국문학 소개와 분석에서도 한국시의 내용을 대만의 경우에 대입하거나 혹은 유사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대만의 문학계에서 가장 한국문학에 관심을 보여주는 인사이며 그를 통해 많은 한국 현대시 작품이 대만에 알려지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4. 맺는 말

이상으로 대만의 3대신문 중의 하나인 『自由時報』의 최근 5년간의 보도와 평론문장을 대상으로 대만의 당대 한국담론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내용이 서울의 한자표기 개정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주권옹호, 4.3 제주사건, 8.15 광주사건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일제 식민기의 역사청산, 그리고 IMF 이후 급속히 성장한 경제와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일반에 대한 순서였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한국의 소식에 대한 전달과 평론뿐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대만의 처지와 대입시켜 고찰하고 논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로 본문에서는 『自由時報』의 특정한 정치적 성향으로 형성된 시각을 들었는데 대만독립과 주권국가 건설에의 지향이 모든 기사와 평론을 최종 총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한자표기 개정은 대만이 처하고 있는 탈중국화의 시대과제와 맞물려 특별히 중시되었으며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바로 대만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독도문제 역시 주권과 영토보호의 차원에서 한국의 행동을 적

30) 『經由一顆溫柔心-台灣, 日本, 韓國詩散步』, 圓神, 2007; 『亮在紙頁的光』, 玉山社, 1997

극 지지하면서 대만의 향후 독립노력과 결부시켜 토론하고 있으며, 역사 바로 알기나 역사청산 소식 역시 한국을 거울삼아 대만의 역사를 찾자는 취지로 요약된다.

특히 이들 신문 고정란에 투고하거나 원고청탁을 받은 인사들의 성향 역시 『自由時報』의 기본적인 입장과 매우 근접하여 이들에 의해 논술된 한국담론은 어떠한 내용과 주제이든 대만의 독립과 중국과 국민당에 대한 비판으로 귀납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 사회적 맥락이 왜곡되거나 목적위주의 강한 편향성을 보이기도 하는 등 특정한 정치의식과 입장이 한국담론을 좌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自由時報』는 현재 대만의 일간지 중 가장 많은 한국관련 보도와 한국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매체이며, 유사한 역사경험과 분단처지를 근거로 한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중국관점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만의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보는 데서 가능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아직은 어렵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역사, 사회적 맥락에 입각한 한국담론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江佩蓉, 《想像的文化圖景: 韓流與哈韓族在台灣》, 臺北, 國立政治大學新聞研究所碩士論文, 2004
-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한류》, 서울, 펜타그램, 2004
- 신윤환 외, 《동아시아의 한류》, 서울, 전예원, 2006
- 楊振隆 編, 《兄弟的鏡子: 台灣與韓國轉型正義案例的剖析》, 臺北, 二二八基金會, 2008
- 聯合報, 臺北, 2004.1.1-2008.11.30
- 유상철 외, 《한류의 비밀》,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 李敏勇, 《經由一顆溫柔心-台灣, 日本, 韓國詩散步》, 臺北, 圓神出版社, 2007
- 李敏勇, 《亮在紙頁的光》, 臺北, 玉山社, 1997
- 自由時報, 臺北, 2004.1.1-2008.11.30
- 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中國時報, 臺北, 2004.1.1-2008.11.30
- 曾貴海編, 《臺灣文化主體性的建構-金容沃先生訪台座談會記錄》, 臺北,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2005
- 曾天富,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현황과 몇 가지 문제점》, 제48회 한국언어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11.30-12.1

영문제요

Discourses on Korea in Modern Taiwan: A Case Study on the Reports in the Liberty Times over the Last Five Years

Tseng Tien-Fu

This study targets the criticisms and articles related to Korea published by the Liberty Times, one of the three major newspapers in Taiwan, over the last five years, and investigates from what perspective and in what way the Liberty Times reported events in Korea and evaluated the problems Korea was facing. The reason why the Liberty Times was chosen as target for discussions is because it has been found that over the last five years, the Liberty Times, a press medium with a strong tendency toward political independence for Taiwan at all times, published more discourses on Korea compared to the other two major newspapers, China Times and United Daily News, and looked at Korea from a different angle. This also indicates that Taiwan people are changing the way they regard Korea.

Among the Korea-related reports recently published by the Liberty Times, the reports on the change of the Chinese translation of Seoul, the capital of Korea, from "Hancheng" (Han City) to "Shouer", take up the majority, followed by the topics related to the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vestigations of past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Cheju April 3rd Incident and the 1980 Gwangju Uprising. Other issues such as historical liquidation of Japanese colonialism and post-IMF rapid economic growth, as well as general issues on the history, culture, and politics of Korea, are also included.

In this study, the most popular topics covered by the Liberty Times will be introduced in order, and the perspective behind these discourses will be analyzed. Although this type of investigation seems to lack organization and detailed planning in terms of the selection of the topics,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press media and the timing factor, the realism and concreteness can be ensured because the reports are based on the news in Korea.

Keywords: Liberty Times, discourses on Korea, historical consciousness, territorial disputes

中文提要

本文是以台灣三大報之一『自由時報』最近五年的韓國相關評論文章作為討論對象，考察它是以何種視角？如何報導韓國？以及如何評價韓國的問題。之所以選擇『自由時報』作為討論對象，是因就最近五年包括『中國時報』、『聯合報』在內的台灣三大報初做整理，發現『自由時報』的韓國論述相較之下要來得多，而且『自由時報』一向是追求台灣獨立傾向非常濃厚的平面媒體，在看待韓國時帶有與其他報紙不同的新視角，而這點也正反映出台灣看待韓國的視角正在改變當中。

『自由時報』近年來有關韓國的報導，當以過去稱作漢城的韓國首都，中文標記改為首爾的話題最多，其次為與獨島有關的主權擁護問題，再來是與4.3濟州事件、8.15光州抗爭等過去歷史有關的真相調查問題，此外還有日據殖民時期的歷史清算，IMF以後急速成長經濟、韓國歷史、文化、政治等一般的問題。

這篇論文即是就『自由時報』談及的這幾個頻度較高的主題，依序首先介紹它的內容，再分析它所論述的背後視角。由於報紙所具有的媒體特性以及時事性的關係，這樣的考察，固然在主題的選定上顯得比較缺乏體系，多少有些便宜行事，但也因為它是以韓國消息為報導對象，更顯現出他的現實性與具體性。

關鍵字：自由時報、韓國論述、歷史意識、領土紛爭

姓名：曾天富(Tseng Tien-Fu)

所屬單位：臺灣 國立政治大學 韓國語文學系

職稱：教授

電子郵件：tftseng@nccu.edu.tw

電話號碼：886-2-29393091 ext. 88124

通訊地址：臺灣 臺北市 文山區 指南路二段64號